

해외의약뉴스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아이의 행동문제의 연관성

개요

임신 중 통증과 열을 줄이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사협회(AMA)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게재된 연구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경우 자녀의 행동장애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임신, 자녀, 아세트아미노펜, 행동문제, ADHD

파라세타몰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액티피드(actifed) 파나돌(panadol), 타이레놀(tylenol) 등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remedies)과 옥시코돈(oxycodone)과 트라마돌(tramadol) 등의 처방약에 함유되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와 해열제 이외에도 알러지, 기침, 감기, 독감, 수면장애 등의 치료제에도 포함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남용은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FDA는 하루 최대 4,000mg 이상을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성분들과 복합제제로 많이 사용되므로 환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복용하는지 알지 못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내분비기능(호르몬을 통제하는 인체시스템)을 방해하여 신경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연관된 ADHD¹⁾

덴마크와 뉴질랜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산모의 자녀에서 ADHD 혹은 ADHD 유형의 증상들이 높게 나타났다. FDA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과 OTC진통제의 사용에 대해 우려했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에비 스테르시아쿨리박사 연구진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에이번 부모-자녀 종단연구(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에 참여한 어머니 7,796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한 자녀의 행동문제와 출산 전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의 연관성과 배우자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연구진은 어머니들에게 임신 18주와 32주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5세가 됐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아이가 7세가 됐을 때 아이들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4,415명(53%)의 어머니가 임신 18주에, 3,381명(42%)의 어머니가 임신 32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흔한 복용 원인으로서는 두통, 근골격계 문제(musculoskeletal problems)와 감염이었다.

출산 후 6,916명(89%)의 어머니와 그 배우자 3,454명(84%)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고, 그들의 자녀 중 5%가 문제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임신 18주~32주 사이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용하지 않은 산모가 출산한 아이들에 비해 행동문제와 과잉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32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아이의 감정조절문제와 행동에 종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어머니와 배우자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녀의 행동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 설계에 있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기간과 양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연구 저자는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자궁 내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출생 전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아이들은 다양한 행동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복용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열이나 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과 ADHD,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12327.php>